

소통의 건축 50인의 작은 목소리가 만든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 분야 대상
2025 부산다운건축상 대상
2025 부산시 아름다운 조경상 최우수상

주례열린도서관

이동규, 성수진

(주)스튜디오바 건축사사무소(Studio BA) 소장

개요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110
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노유자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근린생활시설(북카페)
대지면적	3,239.00m ²
건축면적	1,901.59m ²
연면적	4,930.08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12.12m
건폐율	58.71%
용적률	104.8%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구조설계	승구조 기술사사무소, 천호준
설계	이동규, 성수진, 정대교(자인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이은정, 이정민, 조익현, 호영훈, 유아람
시공	(주)우성종합건설
기계·전기설계	삼신설계주식회사, 석우엔지니어링(주)
조경설계	최영준(서울대학교), 심보원(Lab D+H)
설계기간	2020.10.~2021.12.
시공기간	2022.3.~2024.6.
건축주	부산시 사상구청

©신경석



공원 안의 도서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기능을 넘어 공원 안에서 휴식과 치유를 얻고, 가족이 재충전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이다.

경사지에 끼워진 4개 층의 테라스와 외부계단

16



©신경섭

주진입과 옥상정원의 계단



©(주)스튜디오바 건축사사무소



©신경섭



©(주)스튜디오바 건축사사무소

- 상 자생림과 자유로운 선형의 테라스
- 중 자생림과 조경 테라스
- 하 옥상정원



© 2024
R2N2

보이드와 경사로



© 2024
R2N2



© 2024
R2N2

상 도서관의 중심인 계단 광장
하 자생림 조망의 종합자료실

약 13m의 고저 차가 나는 경사지에 끼워진 4개 층의 조경 테라스는 도서관의 내부공간과 연계되어 층마다 자생림으로 열려 있는 작은 공원의 역할을 한다.



©신경복

대지 고저차를 연결하는 외부계단과 테라스

50인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구청의 적극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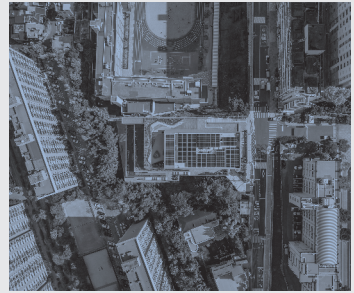
당초 대상지에는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59가구)의 공동주택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공동주택 신축에 반대하는 50명의 주민이 참석한 집회가 열렸고, 주민들은 공사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와 안전대책 수립 또는 대상지를 공공공간으로 확보해 달라고 사상구청에 요청하였다. 대지를 접하고 있는 동성력키유치원·동주초등학교·동주중학교도 소음·분진 발생, 안전 위협,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북부교육지청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사상구청은 민원의 해결을 위해 두 가지 안을 검토하였다. 주택사업자가 민원인 요구조건을 수용한 후 아파트를 건립하는 안과 구청이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활용하는 안이었다. 이후 구청은 주택사업자를 설득하여 부지 매입 후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감정가와 부대비용을 합한 약 32억 원에 약 1,000평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주민 50명이 발의한 도서관 건립 사업은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공원 안의 도서관

공원은 주민들이 초기부터 간절히 원하던 프로그램이었다. 대상지는 인근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나대지였고, 가파른 경사 지형의 동네에 쉬어갈 만한 외부공간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녹지 확

©김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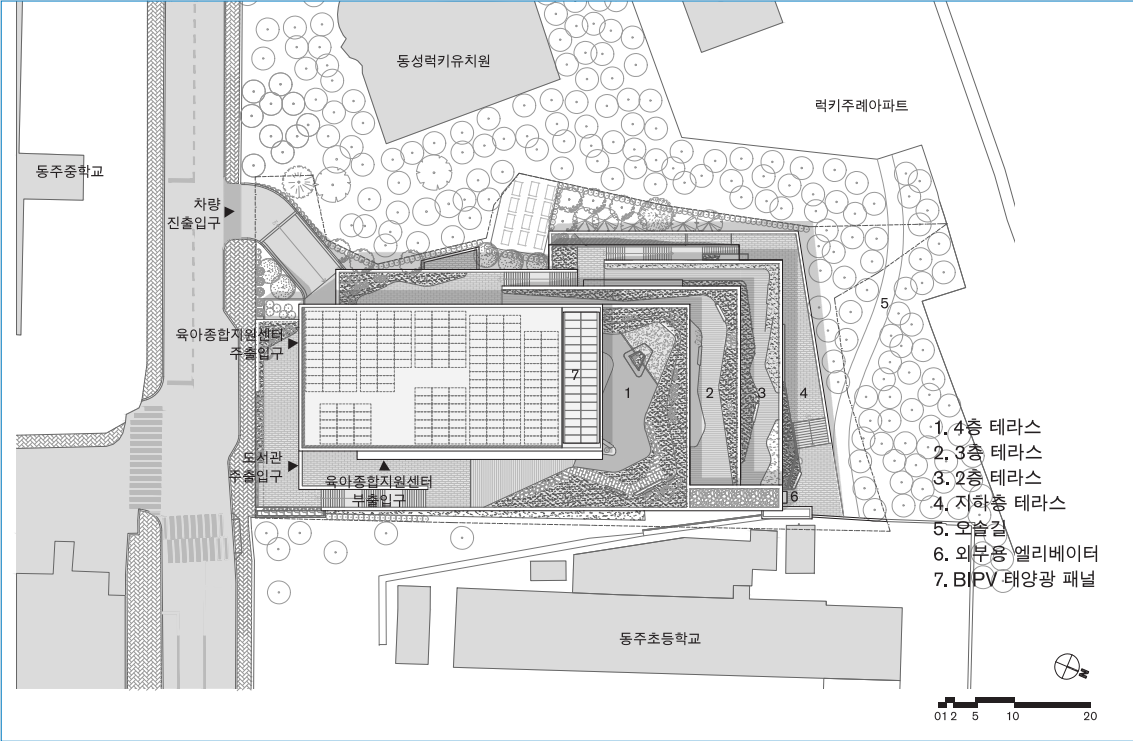


상 공원 안의 도서관
하 자생림과 조경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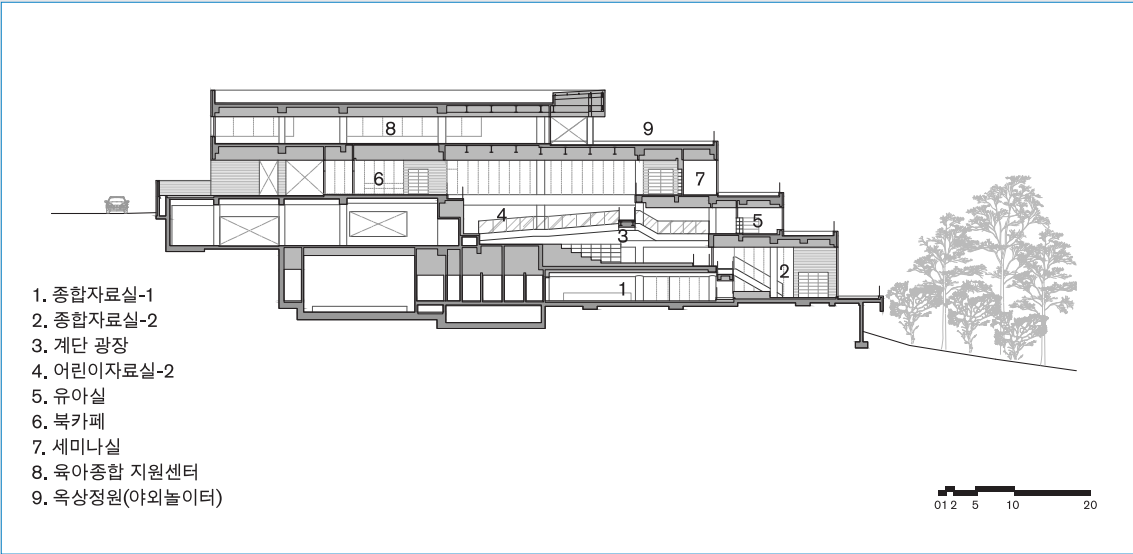
©스튜디오바 건축사무소



자생림과 백양산(공모전 당시의 대지)



배치도



횡단면도

보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반경 1km 안에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원용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주례동은 1960~1970년대 인근 사상산업단지 형성 과정에서 주거와 산업 시설이 무계획적으로 혼재되며 제대로 된 녹지와 공원 용지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광복과 피란,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형성된 부산 여느 마을의 평균적인 풍경일지도 모른다.

도서관 건립에 앞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북카페 등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22.6%),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12.6%), 공원 등 외부 자연환경을 조성한 쉼터 공간(11.8%),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10.2%) 등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기능을 넘어 공원 안에서 휴식과 치유를 얻고, 가족이 재충전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이다.

자생림과 조경 테라스

대지에는 높이 20m가 넘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오래된 자생림이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 숲을 보존하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외부공간 계획의 주된 모티브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자생림에 조경화된 계단식 테라스를 덧대어 주민들이 요구한 공원의 영역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항공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붕을 제외한 모든 외부 테라스 공간이 조경화 되어 대지 전체가 공원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 13m의 고저 차가 나는 경사지에 끼워진 4개 층의 조경 테라스는 도서관의 내부공간과 연계되어 층마다 자생림으로 열려 있는 작은 공원의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이 조경 테라스를 수직으로 잇는 외부계단과 구청의 요청으로 추가된 옥외 승강기를 통해 경사지 상부와 연결되어, 주민들의 공공 보행통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에 녹아든 휴식공간이 된다. 특히 통상

*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9.5.). 주례열린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상 경사지에 끼워진 4개 층의 테라스와 외부계단
하 대지 고저차를 연결하는 외부계단과 테라스



©(주)스튜디오바 건축사무소



©신경선

상 자생림과 자유로운 선형의 테라스
하 자생림 조망의 종합자료실

적인 옥상정원은 건물 사용자만을 위한 공간인 데 비하여 주례열린도서관의 테라스는 주변 공간을 연계하는 외부 공공 보행통로의 성격을 띤다. 현재 아파트 측의 주차 문제 우려로 연결 동선은 일시 보류 중이지만, 향후 아파트 재건축 완료 및 외부인 출입 통제장치 설치 후에는 연결 통로를 개방할 계획이다.

조경 설계는 서울대학교 최영준 교수와 Lab D+H의 심보원 소장이 맡았으며, 전체 건물의 다소 딱딱한 선형과 대비되는 자유로운 선형의 조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바람은 독립적인 조경의 언어로 풀어져 ‘건축을 보조하는 조경’이 아닌, ‘조경만의 존재감을 가진 상호 보완적인 공간’으로 완성되었다.

수목군들 중 대지의 가장 낮은 곳에 밀집해 있는 대나무들은 자생림 중 가장 강렬한 느낌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를 조망하는 종합자료실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저층부 계획의 주된 모티브가 되었다. 이 대나무숲을 조망하는 종합자료실 공간은 설계 단계에서 도서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준공 후 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주민들이 가장 먼저 점유하는 공간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좌석을 확보한 주민이 행복한 하루를 보낼 것을 생각하면, 건축가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백양산으로의 조망

외부공간에서 주목한 또 다른 요소는 경사지 건너편으로 펼쳐진 백양산의 풍광이다.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막힘 없는 조망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옥상정원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이 옥상정원은 최상층에 위치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놀이터이자, 모임공간이 부족한 주민들의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으로 의도되었다. 도서관의 주출입구가 형성된 3층에서 옥외 계단으로 한 개 층만 올라가면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이며, 시칠리아 ‘빌라 말라파르테(Villa Malaparte)’의 옥상정원과 같은 느낌을 가진 동네 전망대가 되기를 바랐다.

열린 도서관, 경계를 허물다

발주처인 사상구는 ‘열린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형태의 도서관을 공모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전 연구에서 파악된 도서관의 커뮤니티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 짐작한다.

건축가로서 기존 도서관 공간에 대해 느꼈던 아쉬움은 공간의 폐쇄성에 있었다. 어린이실과 일반열람실 등 실 단위로 구획된 폐쇄적 구성은 입구에서부터 가족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서관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소중한 기억을 쌓아 가는 장소임에도, 건축가의 관습적인 설계 방식이 이러한 행위를 제약해 온 것이다. 이에 소음 관리가 필요한 강의실이나 유아실 등을 제외하고는 벽을 세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경계 없는 열린 도서관을 통해 가족이 한 공간에서 소통하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열린 공간 구성을 위한 건축적 장치들

이러한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보이드, 경사로, 계단 광장, 스킵 플로어 등의 건축적 공간 구성 장치들을 사용하였다.

보이드는 진입층인 3층부터 지하 1층의 자생림을 향하여 사선으로 열린 공간이며, 보이드 공간 주위로 열람공간들을 배치하여 사용자들의 시선 교류가 일어나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이 보이드를 굽이쳐 내려가는 경사로는 사용자로 하여금 산책하듯 천천히 침잠하며 지하 1층 대나무숲을 조망하는 종합자료실까지 도달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자는 이 산책의 여정 속에서 도서관의 공간 대부분을 경험하며 도서관을 보다 단순한 구조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사로 때문에 동선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데군데 높지 않은 계단과 병합해 계획하였는데, 이러한 동선 구조는 마치 산을 오를 때 마주치는 지름길처럼 구성되어 사용자가 다양한 동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재미를 더한 공간이 되었다. 이처럼 경사로를 주요 공간들을 엮는 주 동선으로 설계해 놓으니, 사용자들이 1~2개 층의 수직 이동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고 경사로를 이용하고 있다.

©(주)스튜디오바 건축사무소



상 백양산 조망의 옥상정원
하 옥상정원



© 건축가



상 보이드와 경사로
하 도서관의 중심인 계단 광장

보이드 중앙에는 전체 도서관의 중심 무대이자 강연 등의 이벤트가 열리는 계단 광장이 경사로와 병합되어 설계되어 있다. 이 계단 광장은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공간과 같은 주민들의 모임공간 역할을 하는데, 시선이 모이는 사회적 교류의 공간인 동시에 인디언 텐트와 안락 쿠션 등을 비치해 두어 자신의 거실처럼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 양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계단 광장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경사로는 이벤트가 있을 때 객석의 역할을 하여, 계단 광장을 둘러싼 입체적인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스킵 플로어는 층간 수직 거리를 줄여 공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특히 1·2층 어린이 사용 공간의 층고를 조절하여 부모들이 원거리의 계단 광장에서 아이들과 시선을 유지하며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절약된 층고는 다른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는 데 활용되었다.

주례열린도서관은 지침상 할당된 35%의 공용면적보다 실제 체험하는 공간이 훨씬 넓게 느껴진다. 이는 자투리 공용공간을 통합하여 중앙에 밀집 배치함으로써 얻은 효과인데, 이 통합된 공용공간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열람실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간결한 재료의 선택

내부 동선인 경사로와 계단 광장은 따뜻한 나무 재질로 마감하여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타고 내려오는 공간에 놓인 하나의 오브제로 인지되도록 계획하였다. 이는 나무 재료 자체가 수직 이동 동선을 유도하는 직관적인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벽돌 외피에서 연장된 내부 재료는 외부와 같은 벽돌로 마감해 건물의 덩어리감이 내부에서도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그 외 벽체와 가구는 백색으로 마감해 시야에서 사라지게 함으로써 나무로 마감된 중심 공간이 강조되도록 하였다. 내장 계획과 가구 설계가 포함된 용역이었기 때문에 내부공간에 대한 완성도도 함께 높였으며, 가로로 긴 철판 서가를 제작하여 서가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계획하였다.

아래에서 위로: 새로운 소통의 방식

도서관 건립을 위해 수고해 준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모든 과정은 처음에 목소리를 내 준 50인의 주민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세금을 낸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는다.

주례열린도서관 건립 사업의 계획 당시 사상구의 인구는 23만 명이었고 총사업비 예산은 225억 원이니, 구민 1인당 약 10만 원의 예산이 쓰이는 사업이다. 이를 건물의 내구연한인 30년으로 나누면 구민 1인당 연간 약 3,000원의 사업이며, 주례열린도서관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의 반을 중앙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었으므로, 구민 1인당 연간 약 1,500원의 사업이 된다. 주요 사용자가 사는 곳이라 할 수 있는 주례동으로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주례1·2·3동의 인구가 약 5만 명이니, 1인당 사업비는 연간 약 7,500원에 불과하다. 투입비용 대비 향유하는 공간복지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다. 어떻게 보면 연간 7,500원의 세금을 더 내고 주례동에 도서관을 하나 더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주례열린도서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공간의 생산 구조가 공급자 측면이나 행정 단위별 예산을 기초로 집행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사용자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공간을 나열해 본 후 집행 방식을 거꾸로 재산정하는 '아래에서 위로의 소통과 생산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주진입과 옥상정원의 계단

© 건축가